

이덕일의 '역사의 창'



붕당과 진영

고대에는 정치적 목적의 당(黨)을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사대부 계급이 집단적으로 조정에 진출한 북송(北宋) 때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들)처럼 여기지만 자기 당이 아니면 모두 이와 반대로 한다.'면서 편향된 당심(黨心)을 비판했다.

이익은 '귀향(歸鄕)'에서 "지금 세상에 붕당의 화(禍)도 그 근원을 따지면 벼슬하려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당쟁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진영(陣營)인데, 진영이란 원래 군대가 집결하고 있는 곳을 뜻한다.

추거자(推車子)라는 말이 있다. 수레를 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상하가 서로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은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大明律)'을 조선 실정에 맞게 고쳐서 형법으로 사용했다. 대명률에는 간사한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것을 뜻하는 간당(奸黨)조가 있는데 '붕당을 결성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모두 목을 베고, 처자는 종으로 삼고 재산은 관에 몰수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당(自黨)은 진봉(眞朋)이고 상대 당은 위봉(僞朋)으로 공격하는 점이다. 성호 이익은 '붕당론(朋黨論)'에서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라고 간파했다.

올곡 이이는 서인의 영수이고, 서에 류성룡은 남인

의 영수였지만 백성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처방은 같았다. 당시 백성들에게 공납(貢納)은 큰 고통이었다.

또한 가짓수도 많았다. 이이는 그 부과 단위를 가호가 아니라 농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고 잡다한 가짓수를 쌀로 통일하자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했고,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 작미법(作米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행에 옮겼다.

지난 7월 17일-18일 NBS의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지지정당 없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즘 정치 수준에 이이나 류성룡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큰 정치를 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시력검사표의 역사와 발달



마양래 보리안과병원 원장

이후 1862년 네덜란드 안과 의사 '허먼 스펠렌'이 가로 다섯 칸, 세로 다섯 칸 격자 안에 들어가는 도형 또는 문자체를 발명해 시력측정에 사용하면서 표준화된 시력검사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란돌트 고리는 쉽게 말하면 'C'자 모양의 구멍 뚫린 원이다. C자 모양으로 시력을 잴 수 있는 비밀은 고리의 트인 곳에 숨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51년 최초의 시력표가 발명되었다. 국내 최초로 발명된 '한천석 시력표'에는 란돌트 고리와 더불어 숫자와 한글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

은 시력검사표의 기호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력인데도 모양이 헷갈려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들로 엄선된 것이다.

우리나라 시력검사표는 0.1에서 2.0까지의 시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 시력은 2.0인 걸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시력검사표의 최고 값이 2.0까지만 나와 있는 것은 시력검사의 목적이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시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낮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함으로 그 이상의 시력을 측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시력검사표의 역사,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안과에서는 혁명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만큼, 안과 치료와 시력 보조도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고

8월 18일 '쌀의 날'을 아십니까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10년 전인 2013년 67.2kg 대비 15.6%(10.5kg)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 이외의 대체 먹거리가 많아진 현실에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추세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 및 홍수나 토양 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자인 농민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국민들은 쌀 소비 촉진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쌀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라는 말이 있다. 힘이 들 때는 위로의 말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도 한다.

'쌀의 날'을 통해 쌀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社說

감사원이 밝혀야 할 소춘공단 특혜 의혹은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 소춘농공단지(산단) 내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광주시와 광산구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광산구는 박 전 시장 아들의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자체 감사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나선 만큼 특혜 의혹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밝혀야 할 특혜 의혹은 무엇보다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광주시와 광산구 관련 공무원의 개인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광주시에 광산구로 용도변경 승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도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도심 산단의 땅값 상승을 노린 토호의 전형적인 투기 사례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특혜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수사 소의를 통해 일벌백제로 삼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젠 회사측이 답해야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지 관심이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전을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용도변경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절차를 위한 스태프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금호타이어 측에서 매매계약, 산업은행과의 부채, 회사를 인수한 더블스타 등과의 관계 증명을 통해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시에서도 용도변경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장 이전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먼저 공장을 비워야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이 성실한 이전 추진 의사를 보이면 최대한 이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용도변경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만큼 이젠 금호타이어 측이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 측이 막대한 매각 지만만 챙기고 신규 투자나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無等鼓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秦) 나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엄격한 법 집행에 있었다.

범수는 뛰어난 언변으로 소양왕의 마음을 사 재상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어려웠을 때 신세를 진 장안평과 왕제를 장군과 태수에 추천했는데, 두 사람 모두 전쟁에서 패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새만금은 무려 33.9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방조제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간척하기 시작해 50년만인 2020년 매립과 부지조성이 끝났다.

새만금은 무려 33.9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방조제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간척하기 시작해 50년만인 2020년 매립과 부지조성이 끝났다.

장·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후 정부의 방침은 우왕좌왕했다.

지자체 역시 국제공항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409km의 광활한 땅은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새만금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역대 정부의 한심한 개발 행정,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중앙관료들의 탁상 행정, 염불보다 잣밥에만 관심을 두는 지방관료들의 무책임 행정, 과정에는 무관심하며 결과만 따지려는 정치인들의 무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2023년 8월 17일 목요일